

# 노무현과 함께



“왜 그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느냐고요?  
그래야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치 1번지 종로의 영예를 포기하고  
부산·경남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  
90년 3당합당을 거부했을 때에도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노무현의 정치에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 부산·경남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6대 총선은 부산·경남에서 출마 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두 번이나 낙선의 아픔을 경험한 고향. 솔직한 심정은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의 시간 끝에 작년 7월 21일, 정치1번지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남다른 감회가 있었습니다. 종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멋진 지역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앞으로 종로에서 한번만 더 당선되면 탄탄대로가 펼쳐진다” 하는 격려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성공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두 번의 낙선을 경험했고, 지역갈등의 골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과 종로에서 안전하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로 1시간, 기차로 4시간인 고향을 오갈 때마다 텅 비어있는 사상공단, 월세조차 나오지 않아 문닫은 가게들, 정치적 소외감에 희망을 상실한 부산시민들을 보면서 전항상 속앓이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향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내 고향을 지역감정 선동의 장으로 삼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며 남몰래 흘리던 눈물을 이제는 같이 하기 위하여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산 경남을 사랑합니다.**

**부산이 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저는 부일 장학금을 받으며 고학을 했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국회

의원도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의 빔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때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라는 고향의 민심과 함께 하지 못해 두 번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5년 부산시장선거에서 부산시민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는 제가 정치적 재기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저를 버리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저를 어렵게 해도 이곳 고향에서 마지막 뿌리를 내리렵니다.

### **존경하는 부산시민 · 경남 도민 여러분!**

**진정한 부산 ·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정권에 참여하여 대화장구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은 전통적인 야도(野都)였습니다. 독재와 맞서 싸우던 과거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권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무슨 명분이 있고, 어떤 실리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 · 경남 지역은 중앙정부와의 통로가 막혀있습니다. 이대로 5년이 더 지나면 우리 고향이 얼마나 더 황폐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노선을 채택해야 합니다. 명분도 부족하고 실리도 없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 정권과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부산도 살리고 나라도 살려야 합니다.

현 정권을 상대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있는 주주그룹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여야의 균형과 경쟁의 구도를 바로 세워야 나라도 살고 우리 지역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에 필요한 정치인은 애정과 능력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애정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움만 줄뿐입니다. 능력은 있으나 애정이 없는 사람은 부산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저 노무현,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부산 · 경남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지역 정치인들과 힘을 합쳐 부산 · 경남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오직 여러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사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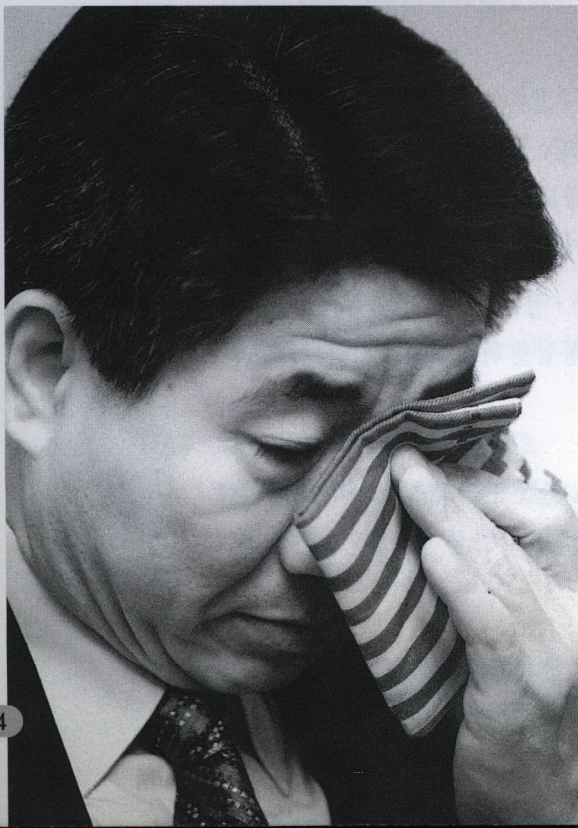
# “자신을 바치지 않고 정치가 바뀌길 기대할 수 있나요?”

부산 출마 선언한 노무현 국민의회의 부총재, 각 언론과 인터뷰

노무현 부총재는 2월 9일 오전 9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서화합을 이루기 위해 정면승부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지역감정의 견고한 벽을 허물기 위해 내년 16대 총선에서 종로가 아닌 부산·경남에서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애초에 그는 4월쯤 결심을 밝힐 계획이었다. 한나라당의 영남권 순회 집회가 그의 결단을 재촉한 셈이다. 회견이 있던 날, 오후 4시 30분 종로 지구당 사무실에서 노 부총재를 만났다.

## 더이상 기다릴 수도 망설일 수도 없었다

어려운 결심을 하기까지 고조되었을 감정이 채 식지 않은 탓일까. 기자 일행을 맞는 노무현 부총재의 표정은 다소 상기돼 보였다. 그는 막 종로구청에서 지역 주민 4백여 명을 만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 주민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참 동안 박수 엄청 칩니다. … 나도 모르게 울어 버렸어요.”

노 부총재는 목이 메는지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정말 울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낸 그가 눈 주위를 훔쳤다.

“정치 1번지라는 종로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보고 싶은 지역구입니다. 주위에서 ‘앞으로 종로에서 한 번만 더 당선되면 탄탄대로가 펼쳐진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정치를 편하게 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종로보다는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지역감정 선동을 보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도, 망설일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저를 지지해 준 종로 주민들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노 부총재는 자청해서 옥토를 버리고 자갈밭을 택했다. 그런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왜 그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느냐”는 것과 “노무현답다”는 것이 그것이다. 얼핏 상충되는 것같은 이 말들은 ‘노무현’의 진면목을 드러내 준다. 그는 무모할 정도로 대의명분을 앞세우는 바람에 번번이 손해 본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제가 결심을 밝혔더니 다들 미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역감정을 깰 수가 있나요? 미쳐야 세상을 조금씩 바꿀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감등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똑같은 사실도 지역을 오가면 흰 것이 검은 것이 되고, 검은 것이 흰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으며, 정당간의 정책 경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제 고향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책임도 못 지면서 들쭉시키고 다니니…”

노 부총재는 이미 지난 2월 4일에 김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결심을 밝힌 바 있다. 이 때 김 대통령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해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역문제로 고심하던 김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십년 가뭄에 단비를 만난 심정이었을 것이다.

— 김 대통령과는 어떤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주로 영남 민심과 지역감정이 주제였어요. 부산·경남의 정서가 뭐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냐고 물으시기에 소외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 드렸지요.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김 대통령은 ‘동서화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지역이 연합하는 것이 좋다, 어느 한 지역을 고립시키는 일은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뜻에 동의한다고 했지요.”

### 김 대통령이 소신껏 해 보라고 격려

노 부총재는 한 시간이 넘게 김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한 가지 ‘양해’를 구했다. 부산에 가서 차세대를 자처하더라도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며 “정치인의 야망은 자연스러운 것이니 소신껏 하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 노 부총재의 지역구도 해소 방안은 어떤 겁니까.

“뭐 간단하지요. 부산·경남에서 국회의 후보가 절반만 당선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신기원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너무 좋아할 일 아니다, 동서화합하기 전에 정권교체되면 망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교체하지 말고 당권교체하자. 그러면 지역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먼저 지역에서부터 여야의 균형과 경쟁의 구도로 가야 합니다.”

— 부산에는 자주 가십니까. 부산·경남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자주 내려갑니다.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맨 육만 하지요. 호남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정권을 놓

은 데서 오는 소외감과 지역 불균형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느낀 피해의식이 작용하는 거지요. 군사독재 시절 부산은 반독재 민주진영의 선봉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산 시민들은 야도(野都)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요. 그걸 되찾아 주자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 말하자면 그 희망을 노 부총재가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무엇보다도 지역감정이라는 견고한 장벽이 제일 큰 문제다. 반정부로 치닫고 있는 지역정서가 그 반증이지 아니겠는가.

— 또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셈인데 이번에는 자신 있습니까.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92년 14대 총선 때는 YS 대통령 만들기로 부산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김대중 깃발을 들고 가서 30% 정도를 얻었습니다. 95년 6·27 시장선거 때는 신한국당에서 노무현을 찍어 주면 김대중이 대통령 된다는 마타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정수라는 막강한 후보를 상대로 37.6%를 얻어 아주 근접하게 따라붙었지요. 지금은 YS도 없고, 민주계도 없잖아요. 왕년에 국민회의가 부산과 맞섰던 정당이라는 지역정서가 좀 남아 있다 뿐이지 한나라당이 내 놓을 게 없어요. 부산 시민들은 이회창 총재를 전혀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된다는 거지요.”

노 부총재는 최근 부산지역 여론조사에서 평균 25%의 지지를 얻어, 2위와 큰 격차를 둔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대로만 된다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면 묘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지역감정이라는 괴물 때문 아닌가.

### 살신성인 아닌 ‘입신성인’ 하러 간다

— 지난 2월 5일 김 대통령은 영남 출신인 김정길 정무수석,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노 부총재를 경남도 지부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부산 출신 몇 사람을 요직에 기용한다고 해서 지역문제가 덮이지 않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신들한테 해로운 일이나? 그것으로 지역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하느님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정치생명을 걸고 뛰어드는 겁니다.”

지역정서가 가라앉으려면 경제를 살리는 길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경제는 단 시일내에 살아날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로 지역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 답은 희망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당장의 현실은 어렵더라도 정서가 결집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부산은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장기적 전망을 세워야 합니다.”

### 이제 부산은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

—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해서라도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 부총재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는 동서통합, 민주대연합에 찬성합니다. 지역간의 대결구도, 정당구조의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제는 여러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이 갖는 도덕성과 정당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합니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산·경남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권이 YS의 손을 들어 준다고 해도 부산 민심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고박고 싸우면 민심을 잃게 됩니다. 저는 제발 (와이에스를) 건드리지 말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면 자기가 값이 좀 나가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부산 시민들도 와이에스에 대해 월가월부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는 이제 흘러간 ‘과거’ 일 뿐입니다.”

— 지역구는 정하셨습니다.

“선거에 임박해서 정할 생각입니다. 부산이나 울산, 경남 지역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 차세대를 자임하고 또 일정하게 ‘내락’을 받으신 셈인데, 혹시 더 큰 욕심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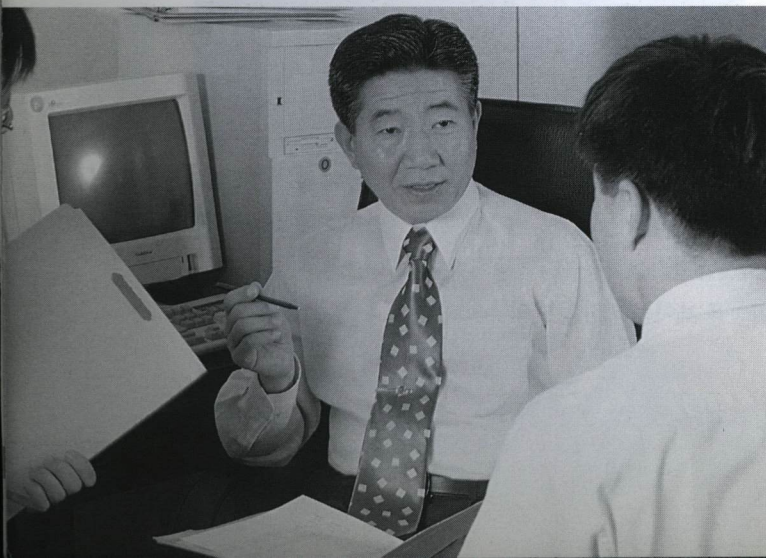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욕심을 버리면 그는 이미 정치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정치를 하느냐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욕심을 가져야지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전 인생을 걸고 투자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태도지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웃음) 실패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성과를 남긴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정균환 사무총장은 노 부총재의 결단을 두고 ‘살신성인’이라 표현했다. 이 말을 전하자 노 부총재는 웃으며 “이번에는 입신성인 하러 갑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만찬이 있다며 서둘러 일어서는 그를 보며 이번엔 실패한다고 해도 그는 네 번째 도전엔 준비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리보다 대의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이미 그는 그 누구보다 성공한 정치인 인지도 몰랐다.



# 옳다 생각하면 끝까지 하고 마는 부산사나이



## 노·무·현

부산·경남 시민들이 이 이름 석 자를 듣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기분에 젖었던 때가 있었다. 그는 부산상고를 나와 독학으로 사법시험을 통과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부산시민들이 전두환 정권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가했던 87년 6월항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름을 날린 인권변호사였으며, 88년 국회로 진출한 직후에는 5공 청문회의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이 고향 부산에서 두 번씩이나 좌절의 쓴잔을 들이켜야 했다. 부산 동구에서 한 번,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또 한 번. 비록 서울 종로구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원내로 진입했지만 노무현은 어디까지나 '부산이 만들어낸 정치인'이다. 노태우 김종필씨와의 3당합당에 반대하면서 김영삼 전대통령과 결별했지만, 그가 '부산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은 변할 수 없다.

개인적 기질을 놓고 봐도 노무현은 오갈 데 없는 '부산사나이'다. '부산 사나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뻔하게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이게 맞다' 싶으면 머리가 터지면서도 화끈하게 끝까지 밀어붙인다. 노무현은 김영삼씨에게 반기를 들고 부산 동구에서 출마해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 만큼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김대중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고 믿어서 출마했던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다.

부산시민들은 달리 생각했기 때문에 노무현을 두 번씩이나 떨어뜨렸다. 그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노무현은 어쨌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했다. 노무현은 '진짜 부산 사나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위험을 끌어안고서 또다시 부산으로 뛰어들었다. 이젠 '부산

기질'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미련한 행동(?)'이다. 부산이 낳은 정치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더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을 두고 '지역감정을 선동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정치'를 비판할 도덕적 권리를 가진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한다. 지난날 김영삼씨 부자에게 빌붙어 온갖 단물을 빨아먹고서도 세상이 바뀌자 쌀쌀맞게 등을 돌린 수많은 '부산 출신 정치인'들과 비교해 보라. 부산 경남이 노무현과 같은 정치인을 가진 것은 그야말로 '불행 중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의원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무척 좋아하고 또 존경한다. 그의 부산행은 '금의환향'도 아니요 '낙향'도 아니다. 그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쓴 잔'을 마시는 일이다. 이것이 그 개인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칼자루를 권 것은 부산 경남의 유권자들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언제든지 독대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가지는 것이 부산·경남의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손익계산을 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알아 달라고 부산·경남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다.

내가 보는 노무현 의원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순정을 간직한 남자다. '친정 부산·경남'과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정의를 향한 변함없는 순정 말이다. 비록 그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나이'에게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겨 준다면 너무나 잔인한 처사가 아닐까. 두 번이나 퇴짜를 맞고서도 또다시 꽃을 들고 부산·경남 시민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일편단심의 이 '부산 사나이', 한 번쯤은 따스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인정 많은 부산 경남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다.

# 노무현, 그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노무현을 보면 눈물이 난다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여정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숙연해 진다.

그러기에 때로는 그에게 따지고 싶어지는 때도 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정치를 하느냐. 온갖 잡초 무성한 정치판에서 때 안 묻히고 무슨 수로 정치를 하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항상 ‘아니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있는 그를 마주하면 아직도 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워진다.



## 민주화의 중심에 선 고졸출신의 인권변호사

1980년 부림사건 이후 노무현은 부산·경남지역의 몇 안되는 인권변호사로 노동현장과 시국현장을 뛰어다니던 사람이다. 그는 지난 민주화투쟁의 시기에 온몸을 던져 앞장섰으며 양심수를 위한 변론에 최선을 다해온 사람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변론을 하던 노무현의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민주화 투쟁에 편승해 오늘까지 온 것 같으며 겸손해 하는 사람이다.



## ‘정의’ 라는 가장 든든한 뺨을 가진 사람

‘청문회 최고의 스타’. 한때 노무현을 따라다니던 꼬리표이다.

능력에 맞게 정치현금을 하는 것은 부정이 아니며 자신은 시류에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회장을 향해 “시류에 순응하여 힘이 있을 때는 권력에 붙고 없을 때에는 멀리 하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가치관의 오도를 가져오게 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킨다고 보지 않느냐”고 호통친 그의 일갈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후련하다. 속없는 의원들로부터 “증인님”, “회장님”이라는 파격의 예우를 받던 재벌회장에게 초선의 의원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그가 ‘국민’ 과 ‘정의’ 라는 가장 든든한 뺨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2번의 낙선, 그러나 당당한 사람

정치여정 10여년, 그동안 그는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파벌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기에 출신 지역구에서조차 쏟아지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3당 야합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선 사람이다. 그런 그가 청문회 최고의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낙선한 것은 어찌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 그를 두고 외로운 정치인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걸을 떠나지 않는 고향이 있고 대의명분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노사가 불신과 반목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파업의 현장에서 그는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치력으로 노사의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3조원의 국가적 경제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노무현을 두고 대립의 주체였던 노사는 지금도 노무현이었기에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 대의명분만이 그를 움직일 수 있다

정치는 분명히 현실이다. 당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당선을 위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보스뒤에 줄을 서야 하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구 '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의 행동은 이러한 공식을 거슬러가고 있다. 3당 야합을 반대한 때도 그랬고, 부산시장으로 출마한 6·4 지방선거와 대선때도 그랬다. 현실은 그에게 변절을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그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스스로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노무현. 그는 대의와 명분에 따라 움직일 따름이다. 그러기에 노무현의 정치에서는 상쾌함이 느껴진다.

### 종로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의 전면에 다시 등장

2번의 낙선과 6년의 원외생활 끝에 그가 돌아왔다. 그것도 정치1번지라는 종로보궐선거를 통해 집권당의 부총재로, 재선의원으로 그리고 다음 선거를 걱정할 필요없는 든든한 지역구를 가지고 화려하게 돌아왔다. 여지껏 지조를 팔아 본 적이 없는 그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오랜 원외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가장 유망한 정치지도자로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노무현이라면 믿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고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정부와 기업의 정리해고제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파업현장이었다. 노사가 불신과 반목으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는 파업의 현장에서 그는 그동안 쌓은 신뢰와 정치력으로 노사의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3조원의 국가적 경제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노무현을 두고 대립의 주체였던 노사는 지금도 노무현이었기에 믿을 수 있었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 그는 천상 '부산사나이'이다

16대 총선은 부산·경남에서 출마하겠다는 그의 기자회견을 보고 "이 사람이 또 험난한 길을 찾아 떠나는 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제 좀 편하게 정치를 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험난한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보고 조금은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찌하랴 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한다"는 부산사나이 인걸.

하긴 그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안쓰러움과 지역감정으로 명들어 가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분노를 생각한다면 이런 그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부산 사나이 노무현. 그의 용기있는 대장정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 왜 노무현은 주목받는가?

##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정치인



「부산일보」 98. 9. 10 : 부산시민 대상

대표적 지역 신문인 **부산일보** 의 조사결과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정치인으로 '노무현 의원' 이 선정되었다. 또한 '99년 2월 18일자 **매일경제신문** 의 조사결과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무현 의원의 부산지역 가능성에 대해 영남 전체의 당선예상 지지율은 37.2%, 부산 지역민들의 경우는 39.5%,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60%의 유권자가 당선을 예상하였다.

## 참신하고 정치적 소신이 뚜렷한 정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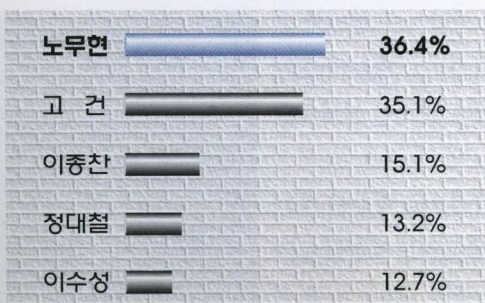


「여성신문 (98. 11. 23)」 여성신문사·현대리서치연구소 공동조사

국내유일의 여성지인 주간 **여성신문** 이 여성단체지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지지도 21%로 정치적 소신과 주관이 가장 뚜렷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99년 2월 22일자 **중앙일보** 의 조사결과 노무현 의원은 PK 대표성과 참신성을 갖춘 여권의 차기지향형 2인자 그룹의 한 축으로 나타났다.

##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역량있는 정치인



「내일신문」 98. 7. 27~8. 5 미디어 리서치 국민여론조사

일하는 사람들의 정론지를 표방하고 있는 **내일신문** 이 전국 20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역량있는 정치인을 조사한 결과 노무현 의원이 36.4%의 높은 지지도로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적합한 정치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99년 3월 2일 **조선일보** 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의원은 가장 촉망받는 정치지도자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망국병인 지역주의 극복없이  
우리의 21세기가 없다고 본다면,  
낙선을 각오하고서 지역주의와  
정면대결해온 그의 정치이력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준다.  
그와 독대한 김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정치가가 있는가”라고  
말했다지만, 우리는  
“왜 이런 정치가가 여전히 드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춘 | 성공회대 교수 · 사회학)

## 노 무 현(盧武鉉)

- 1946년 경남 김해 출생
-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제53회)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년 변호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 1988년 국회 5공비리 조사특별위원
- 1991년 통합 민주당 대변인
- 1993년 통합 민주당 최고위원
- 19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소장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현)
-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현)
- 국회교육위원회 위원 (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실업대책위원회 지문위원장 (현)
- 동남권(부산, 경남, 울산)발전 특별위원장 겸 경남도지부장